

오순절 후 여덟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7월 1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8 번 시편 6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어린이설교 Children’s Message		James Andrews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 24:1-10, 엡(Ephesians) 1:1-14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임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84 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 53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권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좇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교만하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죄악된 속성에서 돌이키며,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았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좇으며 사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엡 1:3)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Ephesians. 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14 (주일)	7/15 (월)	7/16 (화)	7/17 (수)	7/18 (목)	7/19 (금)	7/20 (토)
본문	수22	수23	수24	삿1	삿2	삿3	삿4
	행2	행3	행4	행5	행6	행7	행8
	렘11	렘12	렘13	렘14	렘15	렘16	렘17
	마25	마26	마27	마28	막1	막2	막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17수 오후7:30)	“구속의 역사”(창12:1-3, 출6:6-7)-김강석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7/20토 오전6:30)	“곡식인가? 가라지인가?”(마13:24-30)-윤영록 장로

지난 주일 (7/7) 말씀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고후 12:2-10, 막 6:1-13)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지칠대로 지치고, 심정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참고, 고후11장). 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깨닫고,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부족함 없는 은혜’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은혜는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였습니다(7절). 즉, 우리를 자만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둘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는 은혜였습니다(8-9절). 즉, 우리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3)셋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은혜는 (바로) ‘역설적 은혜였습니다(10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 6:17)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